

# 通假字와 古今字에 대한 小考

李鏡淑\*

---

## ◁목 차▷

---

- I. 緒論
  - II. 古今字
    - 1. 文字假借 分化의 古今字
    - 2. 文字詞義 引伸分化의 古今字
  - III. 通假字
    - 1. 形聲字通假字
    - 2. 同音字通假字
    - 3. 雙聲字通假字
    - 4. 疊韻字 通假字
    - 5. 對轉字 通假字
    - 6. 合音字 通假字
  - IV. 結論
- 

## I. 緒論

古今字와 通假字는 성질이 전혀 다른 두 가지 文字 현상으로 古今字는 文字 발전단계의 分化와 造字의 결과로 나타난 文字 현상이고, 通假字는 文字 사용과정에서 우연히 임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한 개의 글자로 두 개 이상의 말과 의미를 나타내었다가 어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의미도 分化되고 원 글자에 편방이 더해 가면서 점차 分化된 글자가 만들어 진 것이다. 이 때, 分化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글자를 古字라 하고, 分化 후 파생되어 나온 글자를 今字라고 한다.

---

\* 公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그리고 古字와 今字의 관계는 의미가 分化되고 글자가 생성될 때, 필연적으로 글자 字形이나 의미가 서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원래 今字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던 古字에서 今字를 分化 생성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인 원인과 목적이 존재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通假字와 本字는 동시대에 이미 같이 존재하였던 글자로써 시간에 있어서 선후의 구별이 없다. 그래서 동일한 시기의 작품 속에 通假字도 보이고 本字도 같이 보이다가 간혹, 通假字로 本字를 대체하여 나타나곤 하는 것이다. 이 通假字는 古今字와 달리 本字와 字形,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通假字와 本字는 단지 음이 같거나 비슷하여 借用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古今字와 通假字는 발생의 원인부터 뚜렷한 차이가 있어 이 둘을 구분하는 데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한 종류 글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古今字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通假字라고도 한다. 심지어 동일인, 혹은 동일 저서에서도 앞에서는 古今字라고 했다가 또 다른 페이지에서는 通假字라고 하니<sup>1)</sup>, 도대체 이 둘은 무슨 관계인가?

또, 《通假字萃編》<sup>2)</sup>에서는 通假字가 古今字를 옆의 그림과 같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올바른 분석인지 古今字와 通假字의 특징, 종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sup>3)</sup>



이는 고대 문헌 해독은 물론이고 字形들 간의 특징과 字形형성의 성격을 분석하는데 귀중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餘淑榮, 〈古漢語中容易混淆的用字現象——通假字、古今字與異體字新辨〉, 阿壩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26卷第4期, 2009年, 95쪽: “往往同一個字, 甲說是古今字, 乙說是通假字, ……”, 甚至同一個人或同套書, 在甲處說是古今字, 在乙處說是通假字, ……”

2) 鄭權中, 《通借字萃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8年, 69쪽.

3)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 通假字 분류는 鄭權中의 《通借字萃編》를 따르고, 古今字 분류는 王筠 《說文釋例》 이론에 의하여 분류한 盧烈紅의 〈古今字與同源字, 假借字, 通假字, 異體字的關係〉를 따른다.

## II. 古今字

우선 古今字라는 의미의 근원을 살펴보면 《설문해자》의 “古以爲某”, “某之古文爲某”, “某古文某”, “籀文以爲某”<sup>4)</sup>[고문으로 某자로 본다, 某의 고문으로 某자로 본다, 某자는 고문으로 某자를 말한다. 주문으로 某자로 본다.] 등에서 처음 古今字의 의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글자의 예를 몇 개 들어 보겠다.

“𠂔, 古文以爲虧字, 又以爲巧字”, “屮, 古文或以爲艸”, “叡, 古文以爲賢字”, “哥, 古文以爲譌字”, “𠂔, 古文以爲顯字”, “爰, 籀文以爲車轅字”, “疋, 古文以爲《詩·大雅》之雅字”, “𠂔, 古文旅, 古文又以爲魯衛之魯”, “訖, 古文以爲頗字”, “𠂔, 古文以爲覲字”, “完, 古文以爲寬字”, “洒, 古文爲灑埽字”, “勛, 古文勳”, “孩, 古文咳”, “嗚, 古文唐.”<sup>5)</sup>(𠂔는 古文으로 虧字를 말한다, 또 巧字라고 하기도 한다., “屮는 古文으로 혹은 艸로 본다.”, “叡는 古文으로 賢字로 본다.”, “哥는 古文으로 譌字로 본다.”, “𠂔는 古文으로 顯字로 본다.”, “爰는 籀文으로 車轅의 轅字로 본다.”, “疋는 古文으로 《詩·大雅》의 雅字로 본다.”, “𠂔는 古文으로 旅를 말하며, 古文에는 또 魯衛의 魯자로 보기도 한다.”, “訖는 古文으로 頗字로 본다.”, “𠂔는 古文으로 覲字로 본다.”, “完는 古文으로 寬字로 본다.”, “洒는 古文으로 灑埽의 灑字를 말한다.”, “勛, 古文으로 勳字를 말한다.”, “孩는 古文으로 咳字를 말한다.”, “嗚는 古文으로 唐字를 말한다.”)

이들 중 앞의 글자는 古字이고 뒤의 글자는 今字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古字의 古는 어느 시대이고 今字의 今은 어느 시대인가, 이에 대하여 왕념손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古今者不定之名也. 三代爲古則漢爲今. 漢魏晉爲古則唐宋以下爲今.”<sup>6)</sup>[古今이라는 말은 정해진 이름이 아니다. 三代를 古라고 하면 漢이 今이고, 漢魏晉이 古라면 唐宋이후는 今이다.]

段玉裁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4) 許慎, 《說文解字》, 陳昌治刻本, 上海, 古籍出版社, 1965年.

5)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長沙, 岳麓書社, 2000年, 653쪽 등.

6) 鄭權中, 《通借字萃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8, 63쪽.

“今字，古今無定時，周爲古則漢爲今，漢爲古則晉宋爲今，隨時異用者謂之古今字。”(古字와 今字에 대하여 말을 하고자 하는데 今字와 古字는 어떤 정해진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周를 古라고 하면 漢이 今이고 漢을 古라고 하면 晉宋이 今이다. 시기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 古今字이다.)<sup>7)</sup>

즉 古今字의 “古”와 “今”을 정확하게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러한 古今字가 생성된 원인에 대하여 말하자면, 清代의 學者인 王筠이《說文釋例》卷八에서 정확한 논술을 하였다.

“字有不須偏旁而義已足者，則其偏旁爲後人遞加也。其加偏旁而義遂異者，是爲分別文。其種有二：一則正義爲借義所奪，因加偏旁以別之者也；一則本字義多，既加偏旁，則只分其一義也。”<sup>8)</sup>(글자에 편방이 없어도 의미는 이미 표현하기 족하다. 즉 편방은 후에 사람들이 더한 것이다. 그 편방을 더한 글자는 의미가 점차 다른 것이 되었는데 이것이 分別文이다. 이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假借義가 본의를 빼앗은 후 偏旁을 더하여 다른 글자가 된 것이다. 둘째는 本字의 의미가 많아서, 偏旁을 더하여 단지 그 중의 하나의 의미만을 분리한 것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古今字의 생성원인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하나는 文字假借이고 하나는 詞義引申이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古今字에 대한 이론을 근거하여 古今字를 크게 두 가지 종류인 文字假借 分化의 古今字와 文字詞義 引申分化의 古今字로 분류하고 다시 각 항목을 두 종류로 분류하여 古今字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文字假借 分化의 古今字

古今字가 생성될 때, 文字의 假借 分化가 한 원인이 되어 古字에서 今字가 파생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文字 假借 分化의 古今字는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7)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年版, 94쪽

8) 盧烈紅, 〈古今字與同源字, 假借字, 通假字, 異體字的關係〉, 中國, 語文知識, 2007年第1期, 45-48쪽, 인용 王筠의 《說文釋例》.

첫째, 古字가 본의를 버리고 다른 의미로 빌려 사용되어 질 때, 본의를 위하여 新字를 만듦으로써 今字가 파생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衰”와 “蓑”관계에서 이런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衰”는 象形字로 《說文》에서 “衰, 草雨衣, 秦謂之蓑, 從衣, 象形.”(풀로 만든 비 피하는 옷을 말한다. 진 지역에서는 蓑라 한다. 衣의 의미를 따르며 象形글자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풀로 엮어 만든 雨衣가 본의인 것으로 보인다.

후에, “衰”가 本義 이외에 《莊子·外篇·天地第十二》의

“今子賞罰而民且不仁, 德自此衰, 刑自此立, 後世之亂 自此始矣!”(지금 그대가 상벌을 주면 백성은 또한 어질지 못하게 되고 덕은 이로부터 쇠하여 지고, 형벌은 이것으로부터 세워진다. 후세의 난도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衰弱”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자, 본의를 위하여 “+”를 더한 “蓑”가 파생되어 《國語·卷二十·越語上》의 “譬如蓑笠, 時雨既至必求之”(마치 도롱이와 샷갓처럼 만약에 비가 오면 우리는 분명 필요하게 될 것이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비옷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右”와 “佑祐”같은 경우, 《說文》 口部를 보면, 右에 대하여 “助也. 從口又”라고 하였고 段玉裁의 注 에는 “손으로 돕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입으로 돕는다.”라고 하였다. 右의 본의가 “돕는다.”였는데 후에 방위사로 빌려 사용되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본의인 “돕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人를 의부로 한 佑자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 그리고 하늘이나 신이 보호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의부를 고쳐서 祐를 만들었다.

“聿”과 “筆”, 聿이 원래는 손으로 붓을 잡고 있는 상형자로서 본의가 “붓”이다. 《說文》의 聿部에 보면, “聿, 所以書也. 楚謂之聿, 吳謂之不聿.[울은 글을 쓰는 바이다. 초에서는 울이라고 하고 오에서는 불률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爾雅·釋器》에도 “不律謂之筆[불률은 필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후에 聿은 본의를 버리고 어기조사로 사용이 되고, 본의를 위하여 意符인 “竹”을 더한 “筆”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둘째, 古字가 假借義로 빌려 사용되기도 하지만, 후에 古字가 여전히 本義를 표

시하자, 假借義를 위하여 새로 글자를 만들어서 古今字關係를 형성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風”과 “諷”의 관계이다.

風은 본의가 바람이라는 의미로써 《莊子集釋·卷一上·內篇·逍遙遊》에 보면, “夫列子禦風而行, 泠然善也”[대저 열자는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시원하게 잘 지내다가]라는 내용이 보인다. 그런데 이 글자가 《史記·劉敬叔孫通列傳》의 “使辯士風諭以禮節”[말을 잘하는 사람을 파견하여 예절로 그를 깨우쳤다.]나 《史記·平準書》의 “天子於是式終長者, 故尊顯以風百姓.”[그래서 황제는 중대한 의식을 거행하여 長輩의 장례를 치렀고 덕있고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으로써 백성을 교화하였다.]에서는 깨우치다, 혹은 교화하다, 간언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본의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용되자 假借된 의미를 위하여 諷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

“采”와 “彩”를 보면, 采는 원래 본의가 “손으로 나무의 열매를 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후에 《禮記·月令》의 “命婦官染采”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五色”이라는 의미로 假借가 되어 사용되게 되었다. 즉 彩色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후에 采는 假借의미인 彩色의 의미보다는 따다는 의미로 여전히 사용이 되자, 假借義를 위하여 彩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위의 상황을 보면, 원래 비웃을 의미하는 글자인 “衰”가 이 글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는 “쇠락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자, 원래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蓑와 簾글자가 分化되어 파생되었다. 蓑와 簾도 문헌에 주로 사용되는 순서를 보면 먼저 앞의 蓑가 만들어져 사용되다가 후에 簾가 만들어져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바람을 의미하는 “風”자는 “바람과 전혀 관련 없다”고 볼 수 있는 “깨우치다, 혹은 간언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자, 이 파생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諷”자가 分化되어 나왔다.

이와 같은 文字 假借 分化의 古今字는 通假字와 비교적 비슷한 면이 있다. 특히 字形 형성의 과정과 유형이 매우 비슷하여 공통점이 많다. 이에 대하여 通假字를 언급할 때 다시 논하기로 하겠다.

## 2. 文字 詞義 引伸分化의 古今字

古今字가 생성될 때, 어휘 의미의 引伸이 원인이 되어 古字에서 今字가 파생된다. 詞義의 引伸은 一詞多義, 즉, 하나의 어휘가 여러 개의 의미를 포함하여 나타내는 상황을 조성하고, 문헌에서는 一字多義현상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原字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新造字가 생성되고 原字의 의미를 분담하여 古今字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文字 詞義 引伸分化의 古今字도 다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두 가지 항목은 첫째, 古字에서 引伸義가 파생되어 나왔지만 여전히 本義를 표시하자, 引伸義를 위하여 新字를 만들게 되어 今字가 생성된다. 예를 들면, 昏과 婚의 경우, 昏의 본의는 黃昏이다. 古代에 婚禮는 黃昏때 거행이 되었기 때문에 昏에서 結婚의 의미가 引伸되어 나왔다. 이러한 용례는 《左傳·隱公七年》의 “鄭公子忽在王所, 故陳侯請妻之. 鄭伯許之, 乃成昏.”[정나라 공자 홀이 주나라 서울에 인질로 와서 있었는데 진나라 임금은 그를 사위로 삼古字 요청하니 정백은 허락하여 곧 성혼했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景과 影의 경우, “景”의 本義는 日光으로 《說文解字》에서도 “景, 光也. 從日京聲.”[景은 光을 의미한다. 日의 의미를 따르고 독음은 京聲을 따른다.]라고 하였다. 《顏氏家訓·書證篇》에서 “凡陰影者, 因光而生, 故即謂爲景.”[무릇 그림자는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생긴다. 그래서 景라고 하였던 것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景”자에서 그림자라는 어휘가 引伸되어 나오게 되자, 이 引伸義를 위하여 “影”字가 파생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皇와 煌의 경우, 원래 皇(煌)자는 《說文》에서

“大也. 從自. 自, 始也. 始皇者, 三皇, 大君也. 自, 讀若鼻, 今俗以始生子爲鼻子.”[크다는 의미이다. 自의 의미를 따른다. 自는 시작을 의미한다. 처음 皇者는 三皇을 말하는데 위대한 임금이다. 自는 독음이 鼻와 같다. 지금 세속에서 처음 난 아이를 鼻子라고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詩·大雅·假樂》의 “穆穆皇皇”[공경하고 아름답다.]문구, 《荀子·大畧》의 “言語之美, 穆穆皇皇.”[언어의 아름다움은 공경스럽고

찬란한 것이다.)문구에서 皇이 찬란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皇의 이 引伸義를 위하여 “輝”의 의미를 가진 “煌”자가 파생되어 나왔다.

昏과 婚, 景과 影, 皇와 煌자와 같은 글자들은 원래 글자의 의미에서 引伸된 의미로 사용되자 이 引伸義를 위하여 글자를 分化시켜 새로운 글자를 파생시킨 것이다.

둘째, 古字가 본의를 나타내지 않고 引伸義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게 되자, 원래 本義를 위하여 新字를 만들어 글자가 파생되었다.

예를 들면, 丞과 拯같은 경우인데, “丞”은 본의가 甲骨文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람이 함정에 빠져있고 이를 또 다른 사람이 손으로 도우는 모습이다. 즉, 그 본의는 “救”이다. 이 본의에서 輔助, 丞相의 의미가 引伸되어 나오고 丞이 본의 보다는 승상이라는 引伸義로 많이 사용되자, 후에 本義를 위하여 “拯”字를 만들었다.

扁과 編, 《설문》 冊部를 보면, 扁(扁)에 대하여, “署也. 從戶, 冊. 戶冊者, 署門戶之文也.”[서명하다는 의미이고 戶와 冊의 의미를 따른다. 戶冊란 문 위나 방안에 적어 놓은 글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莊子·盜蹠》, “扁虎須[호랑이 수염을 꼬다]”에서 扁은 “가지런히 꼬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扁”의 본의를 위하여 編(編)를 分化 파생시켰다.

丞과 拯, 扁과 編같은 경우는 古字가 引伸된 의미로 사용되자 본의를 위하여 새로운 글자를 分化 파생시킨 古今字이다.

### Ⅲ. 通假字

여기서 通假字는 “本有其字, 依聲托事”[본래 그 글자가 있는데 소리로 의미를 의탁하여 표현한다.]한 글자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근원은 《설문》에서 논한 六書 내용 중 假借 부분인 “假借者, 本無其字, 依聲托事, 令長是也.”[假借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글자가 없는데, 소리에 의탁하여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令과 長같은 글자를 말한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本無其字란 某種의 의미를 기존의 글자로 옮길 수 없다는 말인데 이때 사용하는 글자를 假借字라고 한다. 이



와 상대적으로 通假字는 “本有其字, 依聲托事”로써 본래 그 해당 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음을 따라서 다른 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글자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本字를 쓰지 않고 음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借字)를 쓰는 것이다. 예를 들면, 燕子の “燕”은 원래 상형글자로 제비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양이다. 이 글자가 《詩經·魯頌》의 “魯侯燕喜, 令妻壽母”[노후가 기뻐하시니, 착한 아내, 건강한 어머니 계시네.]에서 제비라는 의미가 아닌, 寔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원래 “寔”字를 쓸 자리에 “燕”을 쓴 것이다. 사실 “燕”과 “寔”는 字形이나 字義에 있어서 어떤 관련도 없다. 단지 讀音이 서로 같아서 빌려서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글자를 빌려 쓸 때, 本字와 借字가 모두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 점이 古今字와 다른 점인데, 같은 책에서 이 “寔”字를 찾아 볼 수 있다. 《邶風·穀風》를 보면, “寔爾新昏, 如兄如弟”[그대 새장가 들어 형제처럼 그녀와 즐겁게 지내겠지요]에서 “寔”字를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는 많다. “錯과 措”, “矢와 誓”, “逝와 誓” 등 이런 글자들은 의미에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를 들면, “措”字의 본의는 “放置”이며 이 글자는 《周易》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莊子·達生》의 “錯之牢柙之中”[우리 한 가운데 그것을 놓았다.]문구에서 “錯”자를 사용하고 “措”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錯”의 本義는 “金塗”으로 放置와 전혀 의미의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음이 같아서 “錯”字形과 讀音을 빌려 “措”의 含義를 나타냈을 뿐이다.

“誓”字의 本義는 “約束”이고 商周金文 중에 이미 보인다. 그런데 《詩·庸風·柏舟》의 “之死矢靡它”[죽을지언정,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는 않으리]에서 “矢”를 사용하고 “誓”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矢”의 本義는 “弓弩矢”로써 “矢”와 “誓”字는 의미의 관련이 전혀 없다. 단지 음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矢”의 形體와 讀音을 빌려서 “誓”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錯과 措, 矢와 誓, 이들은 무슨 필연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古漢語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先秦兩漢의 古書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古漢語 문서의 해독이 어렵거나 오역이 많이 발생하고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해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通假字의 분류는 그 종류도 많고 복잡하다. 鄭權中은 《通借字萃編》에서 通假字를 “形聲字通假, 同音字通假(即雙聲疊韻通假), 雙聲字通假, 疊韻字通假, 對轉字通假, 合音字通假” 등의 6가지 종류로 분류하였고 그 중에서 形聲字通假는 “省形形聲字通

假字, 加形形聲通借字, 異形形聲通借字”로 세분하였다.<sup>9)</sup> 그렇다면 省形形聲字通假字와 古今字形의 어떤 점이 공통되는지 이상과 같은 通假字 분류에 따라서 각각 그 유형과 특징들을 살펴보겠다.

### 1. 形聲字通假字(“省形形聲字通假字”, “加形形聲通借字”, “異形形聲通借字”)

여기서 말하는 形聲字通假字는 동일한 성부를 가지고 있는 글자들을 말한다. 이들 글자 중에서 本字를 사용하지 않고 通假字를 사용할 때, 성부가 공통된 글자들을 通假字로 사용한다.

첫째, 省形形聲字通假字라고 하는 것은 대신 사용된 글자가 의부를 생략하고 성부만으로 이루어진 글자인 것이다. 예를 들면 “庖”대신에 “包”를 사용한 것으로 《易·姤卦》에 보면, “包有魚”[주방에 생선이 있다.]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여기서 包는 “庖廚”를 말하는 것으로 “庖”대신에 包가 사용된 경우이다.

다음은 汝자 대신에 女를 사용한 예이다. 《漢書·地理志》에 보면, “女陽, 女陰”[여수의 남쪽을 양이라고 하고 여수의 북쪽을 음이라고 한다.]라고 한 것이 보이는데, 여기서 女는 汝자 대신 사용한 것으로, 汝水의 북쪽은 陽이라고 하고 汝水의 남쪽은 陰이라고 한다. 그리고 《詩·魏風·碩鼠》의 “逝將去女”[내 이제 너를 떠나]에서도 女는 汝대신에 사용된 글자이다.

介를 玠대신에 사용한 예를 살펴보면, 《書·顧命》의 “太保承介珪”[태보관직을 내릴 때, 신표로 옥을 내렸다.]와 《詩·大雅·崧高》의 “錫爾介珪”[그대에게 큰 구슬을 내려]에서 “玠”를 사용할 자리에 介를 사용하였다. 글자의 의미를 《설문해자》에 보면, 介(介)는 “畫也.從八從人.人各有介.”[경계를 그리는 것이다. 八과 人의 의미를 따른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玉部를 보면, 玠(玠)는 “大圭也.從玉介聲.”[큰 옥을 말한다. 玉의 의미와 독음 介聲을 따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9) 鄭權中, 《通借字萃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8, 28쪽: “分析通假字的類別, 有形聲字通假, 同音字通假(即雙聲疊韻通假), 雙聲字通假, 疊韻字通假, 對轉字通假, 合音字通假六種.其中形聲字通假可分爲“省形形聲字通假字”, “加形形聲通借字”, “異形形聲通借字”, 這些省形形聲字通假字與古今字形有相同之處, 難以分辨出來.”

居를 倨대신에 사용한 예를 《詩·唐風, 羔裘》의 “自我人居居”[우리에게 거만하게 하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 글자에 대하여 《설문해자》를 보면, 屍部에서, 居(居)를 “蹲也.從尸古者, 居從古”[쭈그리고 앉다. 尸와 古의 의미를 따른 회의자인 것으로 居는 예부터의 습관으로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人部에서는 倨(倨)를 “不遜也. 從人居聲.”[불손한 것을 말한다. 人의 의미를 따르고 독음은 居聲을 따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 생형形聲字 通假字 유형은 고서에서 나타나는 通假字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며, 古今字 종류 중 “文字假借分化 古文字”와 字形이나 字意의 생성 방식이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文字假借分化 古今字”에서 古字와 今字는 字形의 간단한 성부 부분에 다시 意符가 편방으로 첨가되어 파생되고 자의에 있어서도 古今字 分化 중에서 假借義 分化로 파생된 글자이기 때문에 通假字가 원자와의 의미 관계 정도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공통되는 면이 있다. 즉, 省形形聲字 通假字과 古今字形은 서로 字形의 형성이 공통되는 면이 있어서 분별하기가 어렵다.

둘째, 加形形聲通借字는 앞에서 살펴본 생형 形聲字 通假字 유형과는 상대적인 字形 현상이 나타나는데 원 글자 옆에 편방을 덧붙인 글자를 원 글자 대신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글자 사용은 古今字의 글자 分化 형식과 거리가 멀어서 서로 공통되는 字形의 형성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럼 구체적으로 의부 편방을 덧붙여서 원 글자 대신에 사용한 글자의 예를 살펴보겠다.

우선 《莊子·齊物論》에 보이는 “趣舍不同”[취하고 버리는 것이 다르다.]의 “趣”자에 대하여 알아보자, 원래 趣(趣)는 설문의 走部에서 “疾也. 從走取聲.”[뚝다는 의미이다. 走의 의미와 독음 取聲을 따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취詞義 “取”자에 “走”字形을 더한 글자로 “取”대신에 “趣”자를 사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棼대신에 湛를 사용한 예를 살펴보겠다. 《詩·小雅·鹿鳴》에 보이는 “和樂且湛”[즐거움이 끝이 없네]에서 “湛”자를 “棼”자 대신 사용하였다. 즉 여기에서 사용된 “湛”은 “棼”의 借字이다. 《설문》의 甘部에서, 棼(棼)에 대하여, “尤安樂也. 從甘從匹耦也.”[지나치게 즐겁다는 의미이다. 甘과 匹耦의 匹의 의미를 따른 회의자이다.]라고 설명하였고, 水部에서는 湛(湛)에 대하여, “沒也”라고 하였다.

純를 屯대신에 사용된 예는 《詩·召南·野有死麕》의 “白茅純束”[흰 띠 풀로 싸

준다.]문구에서 보이는데 “흰 띠 풀로 싸주다”의 “띠 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려면 원래 땅에서 솟아 나오는 싹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인 屯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純을 빌려서 사용한 것이다. 설문의 純(紉)에 대한 설명을 보면, “絲也”라고 되어있고 屯는 艸部에서 “難也. 象艸木之初生. 屯然而難. 從艸貫一. 一, 地也.”[힘들다. 艸木이 처음 나오는 모양이다. 초목이 처음 나오려 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 艸貫一의 의미를 따른다. 여기서 一은 땅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 살펴본 加形形聲通借字는 省形形聲字通假字에 비하여 많이 보이는 通假字가 아니면서 古今字와 비교하여 볼 때, 그 字形의 유형 형성 과정이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셋째, “異形偏旁形聲字通借字”, 이 通假字는 같은 성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부만 다른 通假字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글자 사용의 예를 살펴보겠다.

鞅과 快, 이 두 글자는 성부가 夬이고 의부가 서로 革과 忄으로 다르다. 그 구체적인 사용용례를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겠다. 《漢書·韓信傳》의 “居常鞅鞅”[항상 불만 속에 살다.]문구를 보면, 여기서의 “鞅”은 “懟也”[원망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說文》心部에서 “快(夬)”자를 “不服, 懟也.”[승복하지 않고 원망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革部에서는 鞅(鞅)를 “頸鞅也”[마소 목 위에 걸어 놓은 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할 때, 여기서의 “鞅”은 “快”자 대신에 사용된 글자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魄를 粕대신 사용한 예를 문헌에서 살펴보겠다. 《莊子·天道》의 “古人之糟魄已夫”[옛 사람의 찌꺼기일 뿐이다.]문구를 보면, “魄”은 “粕”대신에 사용한 것이다. 《新序·雜事》의 “凶年飢歲, 士糟粕不厭.”[흉년이 들고 배고픈 시절이라면 선비는 술지게미일지라도 싫어하지 않는다.]과 《淮南·道應》의 “今聖人之所言者, 亦以懷其實, 窮而死, 獨其糟粕在耳.”[지금, 성인이 한 말은 또한 그 실제 의미를 성인을 따라서 가고 없으며 오직 그 찌꺼기만 남아 있을 뿐이다.]를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고, 설문해자의 설명을 보아도 알 수 있다. 鬼部의 魄(魄)에 대한 설명을 보면, “陰神也”라고 되어 있고 《說文》米部의 新附字에서 粕(粕)에 대하여, “糟粕, 酒滓也”라[조박은 술지게미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으로 形聲字通假字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생형 형성 通假字는 文字假借分化古今字의 字形 分化和 형성 유형이 비슷하다. 비록 古今字가 파생될

때 古字와 今字는 字形은 물론이고 의미에 있어서도 관련이 깊다고는 하지만, 假借分化라고 하는 글자 생성의 고금순서가 존재하는 古今字가 있기 때문에 생형 형성 通假字와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2. 同音字通假字(雙聲疊韻通假)

同音字 通假字는 字形에 있어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독음이 동음이라서 통가된 通假字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글자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다.

其와 居, 이 두 글자를 보면, 《詩·魏風·園有桃》의 “子曰何其?”[그대는 왜 그러냐고 말하네]와 《禮記·檀弓》의 “何居? 我未之前聞也.”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나는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네]에서 모두 어조사로 사용되었고 이 두 글자는 서로 대신 사용되어 나타난다. 다시 예를 들면, 《左傳》襄公 23년의 “誰居? 其孟椒乎?”[누가 있나? 孟椒가 있지 않은가?]와 《尚書》의 “若之何其?”[어찌하려는가?]도 같은 유형이다. “其”와 “居”는 동음 假借로 모두 見紐, 之韻에 속하는 글자이다.

沽와 賈, 이 두 글자를 보면, 《論語·子罕》의 “求善價而沽諸.”[좋은 가격을 줄 사람을 찾아서 파시겠습니까]에서 沽가 賈대신에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說文》貝部를 보면,

“賈”는 “賈市也。從貝兩聲。一曰坐賣售也。”(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다. 貝의 의미를 따르고 독음은 兩聲을 따른다. 일설에는 앉아서 물건을 파는 것이다라고 한다.)

라고 하였고, 水部에는 “沽”를 “水名, 出漁陽塞水, 東入海。從水古聲。”(물 이름이다. 漁陽의 塞水에서 나와서 동쪽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水의 의미를 따르고 독음은 古聲을 따른다.)라고 하였다. 즉 “賈”가 원 글자인데 “沽”이 대신 사용된 것이다. 이 두 글자는 모두 “見”紐, “姥”部に 속하는 글자이다.

## 3. 雙聲字通假字

이 通假字는 성모는 같고 운이 다른 글자가 통가된 것을 말한다. 옛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모가 같은 글자를 이용하여 轉注나 假借를 하였다. 그 이유는 韻部는 聲調, 陰陽, 等號 등의 변화가 복잡하고 이와 상대적으로 聲母의 변화는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雙聲字通假字”는 “疊韻字通假字”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다음은 그 구체적인 글자의 예를 살펴보겠다. 九와 鬼, 《禮記·明堂位》에서 “昔殷紂亂天下, 脯鬼侯以饗諸侯.”[옛날에 은나라의 주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였다. 귀후를 죽여 포를 떠서 제후에게 먹였다.]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鬼는 九를 말한다. 《史記·殷紀》에서 “九侯”라고 하였고, 九는 “有”部, 鬼는 “尾”部に 속하는 글자이나 모두 “見”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雙聲字通假字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果와 過, 《國語·晉語》에서 “智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보이는데, 《漢書·古今人表》에서 동일인을 “知過”라고 하였다. 여기서 果는 “果”部, 過는 “戈”部이나 모두 “見”紐로써 雙聲字通假字로써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卿과 慶, 《禮記·祭統》에 보면, “作率慶士, 躬恤衛國.”[경사를 격려하고 거느려서, 몸소 위나라를 근심했다.]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여기의 慶士는 《書》와 《左傳》등에서 “卿士”[삼정승이의 모든 벼슬아치 경사대부]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卿과 慶은 서로 통용하여 사용하였던 글자로 卿은 “庚”部, 慶은 “映”部に 속하는 글자이고 모두 “溪”紐에 속하는 글자로 雙聲字通假字 관계가 형성된다.

#### 4. 疊韻字通假字

疊韻字通假字는 雙聲字通假字와 상대적인 通假字로써 운이 서로 같은 글자를 대신 사용한 通假字를 말한다.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운은 그 변화가 복잡하여 운이 같은 글자를 通假字로 사용한 글자는 상대적으로 雙聲字通假字보다 그 수가 적게 보인다. 그 구체적인 글자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移와 施, 《史記·田叔傳》에서 볼 수 있는데, “鞅鞅如有移德於我者, 何也?”[분노로 불평스러운 것이 마치 나에게 은덕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문구에서 “移”자는 “施”와 疊韻字通假字로 대신 사용되었다. “移”는 喻紐支部글자

10) 鄭權中, 《通借字萃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8, 456쪽.

이고, “施”는 審紐支部의 글자로 동일한 韻部인 “支部”에 속하는 疊韻字이다.

遲와 夷, 《詩·小雅·四牡》의 “周道倭遲”[큰 길 가는 데는 끝없이 머네]를 《文選》에서는 “周道威夷”라고 하였는데 澄紐脂部 글자인 “遲”와 喻紐脂部 글자인 “夷”이 撮운으로 서로 通假字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의미에 있어서는 設問의 走部에서 遲(遲)에 대하여 “徐行也. 從辵犀聲.”[천천히 간다는 의미를 가리킨다. 辵의 의미를 따르고 독음은 犀聲을 따른다.]라 하였고, 《詩經》에서는 “行道遲遲.”[길을 걷는 걸음이 더디고 더디다.]라고 하였다. 設問의 大部에서는 夷(夷)에 대하여 “平也. 從大從弓. 東方之人也.”[평정한다는 의미이다. 大와 弓의 의미를 따른다. 동쪽에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sup>11)</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遲”와 “夷”는 의미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단지 독음의 운이 같아서 사용된 통가자인 것이다.

## 5. 對轉字通假字

韻에 있어서 陰聲, 陽聲, 入聲의 글자가 서로 通轉되는 것을 對轉이라고 하고 이런 글자들이 통가되는 글자를 對轉字通假字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陰聲字는 韻尾가 없고 元音만 있는 글자를 말하고, 陽聲字는 鼻輔音이 있는 글자로 운미는 m, n, ŋ로 끝나는 글자이다. 入聲字는 塞輔音이 있는 글자로 운미는 -p, -t, -k가 있는 글자이다.

이런 글자들이 聲紐와 主要元音이 모두 같으면서 단지 韻尾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서로 통가되어 사용되거나, 혹은 聲紐는 서로 같지 않은데, 단지 主要元音이 서로 같고 元音의 韻尾가 서로 다르면서 통가되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글자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騫”과 “虧”의 예, 《詩·小雅·天保》에 “如南山之壽, 不騫不崩”, [남산의 무궁함 같아 이지러지고 무너짐도 없이]라는 문구가 보이고, 《魯頌·閟宮》에서는 “不虧不崩”[이지러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여기서 “騫”는 溪

11) 물론 設問해자의 자형설명이 모두 맞지 않다. 지금 夷에 대하여서 갑골문을 근거로 하여 蠻이 사람을 감고 있는 모습이라고 후대에 正正을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設問해자의 설명을 기준으로 자형설명을 했을 때 통가자와 본자인 두 자형의 의미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紐, 仙部글자이고, “虧”는 溪紐 支部글자로 이 두 글자는 紐가 같고, 鼻輔음이 이 n인 陽聲字와 元音만 있는 陰聲字로써 陰陽對轉된 對轉字 通假字이다.

“別”와 “徧”의 예, 《書·康誥》에서 “別求聞由古先哲王用康保民”, [고대 선철제왕의 백성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하는 유훈을 탐구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王引之는 “徧求聞於古先哲王也.”[널리 고대 선현과 현명한 왕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듣는다.]라고 하였고, 別과 徧을 살펴보면, “別”는 非紐薛部글자이고, “徧”는 幫紐霰部글자이다. 이 두 글자는 入陽이 對轉된 글자이다.

旆과 發의 예, 《詩·商頌·長發》에서 “武王載旆”[탕왕께서 깃발을 세우시고]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荀子·議兵》에서는 《詩》를 인용하면서, “旆”를 “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旆는 竝紐, 泰部글자이고, 發은 非紐, 月部글자로 이 두 글자는 陰入이 對轉된 글자이다.

## 6. 合音字通假字

이 通假字는 천천히 읽으면 두 개 글자인데, 빨리 읽으면 한 글자로 되어, 두 글자가 합음이 되어 한 글자 대신 사용되는 通假字를 말한다.

《左傳》僖公 5年: “公使寺人披伐蒲.”[현공은 환관 피에게 명하여 중이가 지키고 있는 포 지방을 정벌하라고 한다.]과 僖公25年, “晉侯問原守於寺人勃鞞”[조치를 원나라의 대부로 임명할 때 진나라 문공이 원나라를 지키는 대부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에 대하여 환관 발제에게 상담한다.]에서 “勃鞞”는 “披”를 말한다.

《左傳》哀公 元年, “虞思於是妻之以二姚而邑諸論.”[우나라 임금 우사가 이에 두 딸 이요를 소간에게 시집보내 사위를 삼고 윤지방에 가서 도움을 삼아 머물게 했다.]의 諸, 《孟子·告子(下)》: “有諸內, 必形諸外.”[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밖으로 형체로 드러난다.]의 諸, 《國語·齊語》: “輕過而移諸甲兵.”[가벼운 죄를 짓다면 병기로써 그 죄를 갚게 하라.]의 諸, 《莊子·應帝王》: “人孰敢不聽而化諸?”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의 諸가 모두 “之於”와 合音字通假字 관계이다.

《孟子·告子(上)》: “孟子曰, 富歲, 子弟多賴, 凶歲, 子弟多暴, 非天之降才爾殊



也, 其所以陷溺其心者然也。”〔豐年에 青年子弟들은 대부분 게으르고, 荒年에 青年子弟들은 대다수가 凶暴하다. 이것은 天生의 情性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조건에 의하여 이렇게 변한 것이다.〕의 “爾”는 “如是”의 合音字 通假字이다.

《玄應音義》十九권에서 杵鉏에 대한 설명을 보면,

“仕於反. 謂田器也. 倉頡篇, 鉏, 茲其也. 漢書, 帶經而鉏, 是也.”(뒷글자의 음은 仕와 於의 반절이며, 밭농사에 쓰는 기구이다. 倉頡篇에서, 鉏는 茲其라고 하였으며, 漢書에서는 경을 지고 다니면서 김을 맨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倉頡篇》을 인용하여 “鉏, 茲其也.”(鉏는 茲其이다.)라고 하였다.《周禮·秋官·籩氏》에 보면, “春始生而萌之”〔봄이 싹이 처음 나올 때, 그것을 벤다〕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漢 鄭玄의 注를 보면, “萌之者, 以茲其斫其生者.”〔萌之라고 하는 것은 茲其를 사용하여 그 싹을 베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賈公彥의 疏를 보면, “漢時茲其, 卽今之鋤也.”〔漢에서 茲其라고한 것은 지금의 鋤를 가리킨다.〕라고 하였고, 《설문해자》는 “鉏”에 대하여 “立薊所用也. 從金且聲.”〔서서 풀을 제거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호미를 말한다. 金의 의미를 따르고 독음은 且聲을 따른다.〕라 하였다. 이 설명들을 종합하여 보면 “鉏”는 “茲其(箕)”의 合音字通假字라고 볼 수 있다.

《爾雅·釋天》의 “扶搖謂之叢(或作颺)”〔扶搖는 叢를 말한다.〕를 보면, “叢”가 “扶搖”의 合音字通假字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同音字 通假字, 雙聲字通假字, 疊韻字 通假字, 對轉字 通假字, 合音字 通假字 유형은 古今字의 자의나 字形 형성과 관계가 거의 없는 通假字들이다.

#### IV. 結論

지금까지 古今字와 通假字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보고자 그 발생 원인

부터 시작하여 유형과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古今字의 今字가 古字에 대하여 文字를 만들게 된 目的있는 分化글자이고 古字와의 관련도 확정적인 것이다. 古今字는 일정 시기에 같은 말이었는데도 시대가 다르면 다른 글자를 사용하였다. 이때, 앞에 나왔던 글자는 古字이고 뒤에 나온 글자는 今字이며 이를 합하여 古今字라 한 것이다. 예를 들면, “返回”라는 말을 표시하는 글자는 원래 “反”으로 표시하였던 것을 후에는 “返”을 가지고 표시하였다. “反”과 “返”은 “返回”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古今字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古今字의 발생 원인은 今字가 古字의 어떤 의미 하나를 분담하기 위하여 생성된 것으로 주로 원래 있던 글자위에 편방을 더하여 今字가 생성된다. 다시 말하면 古今字는 언어사용과 文字의 발전 과정에서 생성된 文字 派生分化현상으로 古今字의 古字가 여러 가지 말의 여러 가지 의미를 겸하여 나타내다가 후에 今字가 생성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古字와 今字는 시간상의 전후 순서가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古今字는 동시대의 서적에서 古字와 今字가 동시에 나올 수 없고, 한 글자가 먼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일정기간 흐른 후, 分化 派生된 今字가 나타난다.

앞에서 이미 논하였듯, 이에 대하여 清代의 學者인 王筠이《說文釋例》에서 정확한 논술을 하였고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古今字를 크게 두 가지 유형인 文字의 假借分化古今字와 文字詞義 引伸分化 古今字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文字假借 分化의 古今字는 다시 古字와 今字에 대한 본의와 分化된 의미와의 관련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고 文字詞義 引伸分化의 古今字는 다시 古字와 今字의 본의와 分化된 引伸義와의 관련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위의 분류와 각 항목 글자들의 특징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古今字는 古字와 今字가 形體나 意義에 있어서 서로 必然的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래 글자와 派生된 글자가 의미의 假借 관계로 조자되어 分化가 되었든, 아니면 글자 의미의 引伸 관계로 조자되어 分化가 되었든 이들은 字形과 자의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위의 古今字와는 달리 通假字는 形體와 意義에 있어서 本字와 通假字가 必然的인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通假字에서는 단지 독음에 있어서 本字와 通假字가 서로 관련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단지 音이 같거나 비슷한 음을

가지고 있는 글자라면 通假字는 借用할 수 있는 것이다.

通假字와 本字는 동시대에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언어 발전의 공통된 역사적 시간을 가지고 있고 生成時間에 있어서 先後의 區別이 없다. 같은 시기, 같은 작품 속에서도 通假字를 이용하여 本字를 대신한다. 이러한 通假字는 선진시대 사람들이 文字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通假字가 本字에 대하여 文字 필사할 때, 간단히 대체한 현상으로 本字와의 관련도 임시적인 것일 뿐이다.<sup>12)</sup>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로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하나는 고대에는 글자 수가 적고 글자 사용에도 규범이 없었으며 자서를 갖추고 글자를 사용하기 힘들었다. 또한, 고대에는 아직 자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사의 간편함을 위하여 어떤 때는 독음이 서로 같거나 혹은 비슷한 글자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고대 문헌이 필사되는 과정이나, 새겨지는 과정에서 通假字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이는 通假字 출현이 매우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었던 글자 사용현상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간의 발음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唐 陸德明의 《經典釋文·卷1序》에서 인용한 후한 鄭玄은

- 12) 餘淑榮, 〈古漢語中容易混淆的用字現象——通假字、古今字與異體字新辨〉, 中國, 阿壩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26卷, 第4期, 2009年, 95-96쪽: “而通假字與本字同時並存, 處於語言發展的同一歷史平面上, 沒有時間先後的區別, 因而在同一時期的作品中, 可以用通假字代替本字; 古今字在形體、意義上有必然的聯系, 而通假字在形體、意義上沒有必然的聯系; 古字包含今字的含義, 而通假字只有聲音上的聯系, 只要音同音近就可以借用; 古今字中今字對古字是文字制訂上有目的的分化, 它同古字的聯系是確定的, 通假字對於本字是文字書寫中的簡單替代, 它同本字的聯系是臨時的.”
- 13) 餘淑榮, 〈古漢語中容易混淆的用字現象——通假字、古今字與異體字新辨〉, 中國, 阿壩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26卷, 第4期, 2009年, 95쪽: 所謂通假字, 它產生於“本有其字, 依聲托事”, 即人們在書寫某個詞的時候, 沒有寫本字, 而寫了一個音同或音近的字(借字). ……沒有任何字形、字義上的瓜葛, 只因讀音相同, 就拿來借用了. 而且借用的時候, 本字和借字都是當時客觀存在的, 它們是處於語言發展的同一歷史平面上, ……也無規律可循. 這種現象在古漢語裏很普遍, 尤以先秦兩漢的古書爲最(當然後人沿襲而用的情況也不少). 爲什麼會出現這種情況呢? 我們認爲: 一是古代字數少, 用字又沒有規範, 爲了書寫的簡便, 有時把一些讀音相同或相近的字混用了; 二是書面材料在輾轉傳抄, 刻寫的過程中出現了一些通假字.”

“其始書之也，倉卒無其字，或以音類比方假借爲之，趣於近之而已。受之者非一邦之人，人用其鄉音，同言異字，同字異言，於茲遂生矣。”(글을 쓰기 시작할 때, 창졸지간에 그 글자를 찾지 못하거나 할 때, 혹은 음이 비슷한 글자를 빌려와서 해당 글자를 나타내었다. 그 비슷한 글자를 따랐을 뿐이다.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한 지역의 사람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발음을 사용하여 글을 적으니 같은 말이라고 하여도 다른 글자일 수 있고 같은 글자라도 다른 말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점차 발생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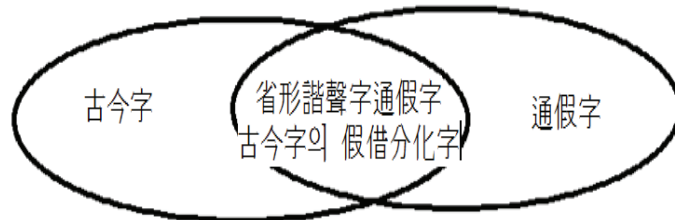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지역 간 차이는 발음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朱駿聲이 《說文通訓定聲·自敘》에서 “不知假借者，不可與讀古書；不明古音者，不足以識假借”<sup>14)</sup>(假借를 모르면 고서를 읽을 수 없고 고음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假借를 식별할 수 없다.)라고 한 이 말은 변함이 없는 진리로 通假를 모르면, 고서를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서의 함의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通假字를 파악하는 것은 古書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본고는 이러한 通假字들을 크게 6가지 유형인 “形聲字通假字，同音字通假字，雙聲字通假字，疊韻字通假字，對轉字通假字，合音字 通假字”로 분류하고 이 중에 “形聲字通假字”를 다시 세 가지 “省形形聲字通假字，加形形聲字通假字，異形偏旁形聲字通假字”로 분류하였다. 다음에 이 분류된 기준에 맞추어 그 구체적인 사용용례를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한 결과 “形聲字通假字”유형의 “省形形聲字通假字”에 속하는 通假字가 古今字 중 文字假借 分化의 古今字와 字形 형성과 유형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외 다른 古今字와 通假字는 서로 관련성이 비교적 멀어서 각기 서로 다른 영역의 글자 유형으로 분류가 명확하게 다르다.

그래서 본고는 古今字와 通假字에 대하여

14)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北京, 中華書局, 1998年, 4쪽.



와 같이 나타내 보았다. 이 관계는 서론에서 말한 “通假字가 古今字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본고에서는 通假字와 古今字의 관계 중 “省形諧聲字通假字”와 “文字假借 分化的 古今字”는 공통되는 성질의 글자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그 외는 각기 다른 성질의 글자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古今字와 通假字의 유형과 그 특징 그리고 그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고서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參考文獻】

- 許 慎, 《說文解字》, 陳昌治刻本, 上海, 古籍出版社, 1965年.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古籍出版社, 1965年.  
 王 筠, 《說文釋例》, 北京, 中華書局, 1987年.  
 王 筠, 《說文解字句讀》, 北京, 中華書局, 1988年.  
 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北京, 中華書局, 1998年.  
 李珍華, 周長楫,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西國, 1999年.  
 王 寧, 《訓話學原理》,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6年.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長沙, 岳麓書社, 2000年.  
 王引之, 《經義述聞》,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85年.  
 楊樹達, 《積微居小學金石論叢: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3年.  
 黃靈庚, 《訓話學與語文教學》, 浙江大學出版社, 2008年.  
 鄭權中, 《通借字萃編》, 天津古籍出版社, 2008年.  
 餘淑榮, 《古漢語中容易混淆的用字現象-通假字、古今字與異體字新辨》, 阿壩師範高

等專科學校學報, 第26 卷 第4 期, 2009年.

段觀宋, 〈異體字在訓詁中的作用〉 東莞理工學院學報, 第13卷第 2期 2006年.

中國《先秦兩漢》: <http://ctext.org/pre-qin-and-han/zhs>

臺灣中央研究院漢籍電子文獻: <http://hanji.sinica.edu.tw>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 <http://kb.sutra.re.kr/ritk/search/xmlSearch.do>

### 【中文提要】

本文把古今字分爲“文字假借分化古今字”与“文字詞義引伸分化古今字”, 把通假字分爲“形聲字通假字”、“同音字通假字”、“雙聲字通假字”、“疊韻字通假字”、“對轉字通假字”、“合音字通假字”, 再把“形聲字通假字”分爲“省形形聲字通假字”、“加形形聲字通假字”、“異形偏旁形聲字通假字”。

本文通過分析古今字與通假字的類型與特點以后, 發現古今字的文字假借分化字與通假字的省形形聲字通假字的字形的類型很相似.要不是調查古典的例句, 就不能知道到底是古今字還是通假字.明确古今字与通假字的關係与特点, 對閱讀古典也有很大的幫助.

### 【主題語】

文字假借分化古今字, 文字詞義引伸分化古今字, 省形形聲字通假字, 形聲字通假字, 同音字通假字

ancient-present chinese characters, borrow-divided, expand-divided, omitted-type, characters of sound-meaning, characters of pronounced-alike

투고일: 2012. 10. 15 / 심사일: 2012.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2. 11. 10